

농어촌공사 논산지사, 탐정호 쓰레기 처리 '총력'

✎ 최인석 기자 | ☎ 승인 2024.07.28 05:01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가 탐정호의 쓰레기와 부유물을 처리하고 있다. 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제공

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(지사장 장상규)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저수지,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물을 특별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.

또한 논산지사는 집중호우로 1만 8000m³의 쓰레기 및 부유물이 탐정저수지로 떠내려와 수질악화 뿐만 아니라 하류부 국가하천인 논산천의 훼손 및 오염이 우려돼 쓰레기 및 부유물이 논산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탐정저수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하지만 저수지의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1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.

농어촌공사 논산지사 관계자는 “쓰레기 및 부유물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맑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것”이라며 “수질보전 및 민원 사전 해소와 저수지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

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가 탐정호의 쓰레기와 부유물을 처리하고 있다. 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제공

논산=최인석 기자 cisk1@ggilbo.com



최인석 기자 cisk1@ggilbo.com